

Shinhan Bank Climate Finance Report

2022 신한은행 기후금융보고서





기후금융보고서 발간 목적

신한은행은 「신한은행 2020-2021 ESG보고서」를 2021년 12월에 최초 발간하였습니다. ESG보고서를 통해 신한은행의 ESG 전략, 활동 및 성과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신한은행 ESG보고서를 통해 녹색금융 및 기후금융 관련 내용을 다루었지만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공시 표준인 GRI와 SASB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였기에 본 「신한은행 기후금융 보고서」를 별도 발간하여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TCFD), ISO14097 프레임워크 등의 기준을 참고하여 기후금융 전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TCFD는 2021년 10월 '지표·목표와 전환계획에 대한 가이드선스'에서 정보공개를 위해 기업에서 요구한 '지표와 목표'에 초점을 맞춘 세부적인 공개방법을 담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SCOPE 3의 목표와, 파리협정 온도 목표 (1.5°C)와 관련된 활동, 기간내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등의 내용을 본 보고서에 반영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특징은 기후금융전반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고자 TCFD의 4개의 체계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와 감축 목표) 뿐 아니라 기후금융관련 프레임워크인 ISO14097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DP 요구사항을 본 보고서에 포괄적으로 확인 할 수 있게 작성되었습니다.

ISO14097은 녹색금융 활동을 평가하고 보고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입니다. 기후변화 관련활동을 평가하고 보고하기 위해 사용된 프레임워크로 기후변화 위험 / 기회 / 영향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투자 및 금융활동을 평가하고 보고하기 위한 원칙과 요구사항을 담은 프레임워크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한은행 기후금융보고서」는 신한은행의 기후관련 활동들을 외부 검증기관 (DNV Korea)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보고서 30p.에서 검증성명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관련 보고서 현황]

보고서 구분	기후금융 관련 포함내용	3자 검증	발간시기
신한은행 '20-'21 ESG보고서	- 기후금융 추진전략 및 ESG리스크관리 (P.11~14) - E (환경)분야 주요 활동내용 (P.33~49) - ESG정량데이터 (P.77~82)	실시	'21. 12
신한은행 기후금융보고서	- TCFD / CDP / ISO14097 요구사항 내용 반영	실시	'22. 3
신한은행 적도원칙 이행보고서	- '20년 9월 가입 이후 적도원칙 검토 건수에 대한 이행 보고서 작성	-	(1차) '21. 3 (2차) '21. 9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신한은행의 노력

신한은행은 사업 전략의 핵심 축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하였으며, 금융기관 차원에서 탄소중립 달성 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2020년 9월에 적도원칙 가입을 하였습니다.

적도원칙은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관련 거래원칙으로,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 파괴 또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지원이나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협약입니다.

적도원칙 가입 이후 1년간은 유예기간이 적용되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적도원칙 연간 보고서를 2회 (3/9월) 발간 하여 이행현황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적도원칙 가입 후 1년 동안 총 36건의 적도원칙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자료를 통한 ▶ 프로젝트 실시 전 사업지 및 인근의 환경사회 영향파악 ▶ 적용되는 환경사회 기준 준수 ▶ 관리시스템 및 계획 수립 ▶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참여 실시 ▶ 고충처리 매커니즘 구축여부 등 적도원칙 이행여부 심사를 실시하여 적도원칙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금융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신한은행의 탄소중립 달성을 향한 노력으로는 파리기후협약에 부합하는 SBTi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방법론을 통해 금융 배출량과 내부 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은 파리협정 1.5 °C 시나리오 기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SBTi 방법론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21년에는 대출 / 투자 / PF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금융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축목표 또한 설정하였습니다.

금융배출량 산출방식은 PCAF (탄소회계금융협회) 기준에 따라 측정자산을 분류하고 배출주체의 탄소배출량에 금융회사의 기여도를 감안하는 등 객관화된 금융배출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PCAF 기준 금융배출량은 p.29 참고)

2021년에는 Net-Zero Banking Alliance (탄소중립 은행 연합 / 이하 NZBA) 에 가입하고 워킹그룹에 참여하여 파리 기후협약 목표 달성에 대한 기후리스크 관리를 본격화 하였습니다.

NZBA 가입과 활동을 통해 신한은행은 대출, 투자 등 보유 자산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Net-Zero로 만들기 위해 합의하고, 중간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기후리스크에 따른 기후 변화 대응 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앞장서기 위한 다양한 탄소중립 활동들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Contents

I . 지배구조

1.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사회 감독 설명 _ 7p
2.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설명 _ 7p
3.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실무조직과 해당 조직의 역할 설명 _ 7p

II . 전략

1. 조직이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확인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설명 _ 10p
2.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설명 _ 13p
3.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 대응전략 혹은 정책 및 추진 방향성에 대한 설명 _ 16p
4. 2°C 이하의 시나리오를 포함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경영전략의 유연성 설명 _ 17p

III . 위험관리

1.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설명 _ 20p
2.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설명 _ 22p
3.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에 통합되는 방법에 관한 설명 _ 24p

IV . 지표와 감축목표

1. 조직이 경영전략 및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 공개 _ 27p
2. Scope 1, 2 및 Scope 3(해당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위험 공개 _ 27p
3.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관리를 위해 조직에서 사용하는 목표 및 목표 대비 성과 설명 _ 28p

[별첨] 제 3자 검증 성명서 _ 30p



2022
신한은행 기후금융보고서

I. 지배구조



I. 지배구조

1.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사회 감독 설명

- 신한은행은 행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 모니터링 및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3월 이사회 內 소 위원회로 ESG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ESG경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CEO 및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 하였으며 정기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 이사회 내 ESG위원회 신설을 통해 금융권 ESG경영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2.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설명

- 신한은행은 지속가능경영 추진에대한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하고자 ESG관점의 중장기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쉐 경영진 대상 ESG경영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ESG영역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심의 / 의결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2회의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배출량 목표 설정, 신한은행 ESG 보고서 발간 등을 결의 하였습니다.

3.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실무조직과 해당 조직의 역할 설명

- 신한은행은 기후변화 관련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ESG 경영실행력을 강화하고자 ESG 추진부서 부서장 및 셀장이 참여하는 ESG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총 4회 개최 하였으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 대응현황, 탄소중립금융을 위한 배출량 감축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였습니다



[신한은행 ESG거버넌스_위원회 구성]

구분	대상 및 논의 아젠다	비고
신한은행 ESG위원회	CEO, 사외이사 전원	'22년 3월 신설
신한은행 ESG경영위원회	전 경영진 대상, ESG전략 아젠다 도출, 전략과제 점검	'21년 신설
신한은행 ESG운영위원회	ESG추진부서 및 AGENDA별 유관부서 부서장 ESG추진과제 설정, 공통이슈 대응 협의	'21년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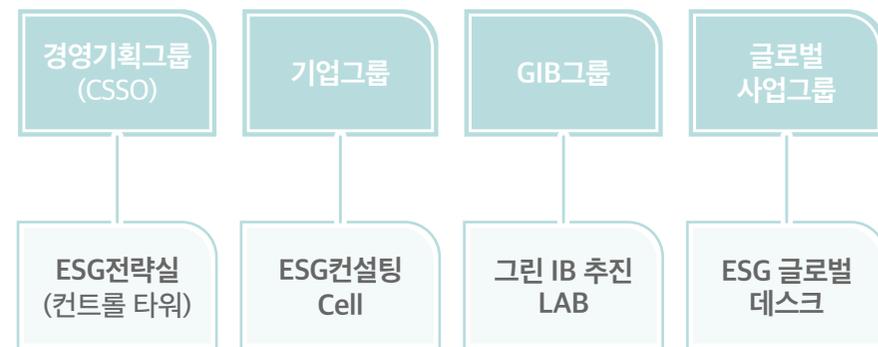
신한은행 ESG거버넌스_조직도

신한은행은 경영기획그룹 내 ESG전담조직은 ESG전략실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전략실에서는 전행 ESG전략 수립 및 운영 총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ESG 관련 실무부서인 각 본부부서는 ESG관련 상품 / 서비스 등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 기업고객의 ESG경영활동 개선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자 2022년 1월 ESG컨설팅 셀을 신설했습니다.

ESG컨설팅을 진행한 기업고객에게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환 금융상품 등 실질적인 금융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신한은행 ESG 관련조직]



2022
신한은행 기후금융보고서

II. 전략



II. 전략

1. 조직이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확인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설명

A. 단기, 중기, 장기적 물리적 (Physical) 위험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국 기준 2001~2010년 사이 일강수량이 80mm 이상인 경우 (집중호우)가 연평균 2.6일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농가나 산간 지방 뿐만 아니라 도심지역까지도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신한금융그룹 영업점에도 단기적인 물리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으로 인해 홍수, 산사태, 폭염, 산불 등 다양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을 물리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이상기후 현상에 대해 지역별 / 업종별 위험의 수준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내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각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지역별 위험수준을 판단하고, 해당 지역에 위치한 지역별 업종별 익스포저 수준을 반영하여 신한금융그룹의 투자 자산에 대한 물리적 위험 수준을 분석 및 판단하고 있습니다.

B. 단기, 중기, 장기적 전환 (Transition) 위험

기후변화 및 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후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나 사업에 투자할 경우 기업이미지가 훼손되어 영업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 및 프로젝트 투자의사결정 시 경제성 분석 외에 환경 사회적 영향과 같은 비재무적 리스크를 평가·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는 2020년 9월 시중은행 최초 적도원칙 가입을 통해 총 36건에

대한 PF (33건) 및 자문 (3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였고 2021년 3월과 9월에는 시중은행 최초 적도원칙 이행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적도원칙 적용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실시 전 사업지 및 인근의 환경 사회 영향파악, 적용되는 환경사회 기준 준수, 관리 시스템 및 계획수립,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참여 실시 등 적도원칙 요구사항 전반의 이행여부를 심사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련 준수사항등을 금융약정서 내에 반영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그룹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체계」에 따라 대규모 개발 PF (100억 이상, 유의영역)에 대해 사업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자연환경, 생태계 등 환경영향과 생활권 침해, 보건 등 사회영향에 대해 리뷰를 수행하고 있으며, 리스크 리뷰를 실시 하였으며, 고위험 위험등급 (A등급 3건, B등급 10건)을 판정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경감대책, 관리 조치가 필요 할 경우 이를 금융계약에 반영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적도원칙 이행현황]

※ 2021년 12월 기준

등급별	A등급		B등급		C등급	
	1		2		33	
국가별	국내			해외		
	33			3		
거래별	프로젝트금융(PF)			금융자문서비스(FA)		
	33			3		
산업별	인프라	석유, 가스	전력	기타		
	1	0	2	33		

* 세부내용은 적도원칙 이행보고서 참조 : 당행 홈페이지 게시



C. 소송 및 단기, 중기, 장기적 배상책임 (Liability) 위험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체계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투자기업 또는 프로젝트의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환경오염 경감을 위한 금융 조건을 부여합니다.

금융 서비스업 특성상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투자 기업 또는 투자 프로젝트의 기후변화 이슈로 소송이 발생되어 해당 사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 투자 기업 또는 프로젝트의 이미지 및 평판 하락으로 기업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D.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가장 리스크가 높은 섹터, 비즈니스모델, 국내외 밸류체인, 투자대상

기후변화 관련 규제에 의한 포트폴리오의 재무적 영향 (추가 탄소비용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방향을 결정합니다. 2015년부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중 최근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000tCO₂e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또는 자발적으로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대상이 되어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허용량을 할당 받아 그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배출허용량이 부족한 경우 다른 규제대상기업으로부터 배출허용량을 구매해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허용량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로 인해 규제대상기업은 설비투자, 배출권 구매 등으로 인한 운영비용이 상승하게 되어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적 영향을 고려할 경우 마이너스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유의영역에 포함되는 배출채권 / 유가증권 규모는 약 18.8조 (188,268억원)로, 관련 기업 중 마이너스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존재할 경우 상환 및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기회가 있는 섹터, 비즈니스모델, 국내외 밸류체인, 투자대상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매출 증가

최근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000tCO₂e 이상인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 수준 (50,000tCO₂-eq 200T 이상 업체, 15,000tCO₂-eq 80T 이상 사업장)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 온도 상승으로 인해 고객의 에너지 관리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규제 대상 기업 고객은 온실가스 저감 시설 설치, 건물에너지 관리, 건물 리모델링, 노후시설 교체, 녹색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신한은행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15개의 친환경 대출 상품 *(2021년 기준 대출 잔액 9,965억원)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관련 상품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이 큰 기회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대출상품 현황

: ESG보고서 P.36 참고 (보증대출 2개, 친환경전용대출 5개, 정책자금대출 7개, EV-MY Car대출)

F. R&D 및 혁신을 통한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2012년 발전사가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인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가 도입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보전제도 (FIT, Feed-in Tariff)와 함께 운영되며 2022년 이후 신재생비율을 1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07년 이후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로 발전사와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기회가 증대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금융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PF 투자 (2021년 기준 PF 약정금액 4,226억원)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관련 상품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이 큰 기회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G. 포트폴리오와 관련하여 식별된 단기, 중기, 장기적 기후 위험 및 기회

신한금융그룹은 2020년 11월 탄소중립을 위한 Zero Carbon Drive를 선포 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포트폴리오 전환을 목표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대출, 채권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해당 사항이 기후 시나리오에 따라 가져올 재무적 위험을 분석합니다.

탄소배출량과 집약도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의 기후변화 위험 요인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2.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설명

A. 정책

신한금융그룹은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그룹 차원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2019년 2월 국내 금융기업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 원칙'을 수립,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제로 카본드라이브라는 넷제로 정책을 선언하여 2050년까지 자산포트폴리오 / 내부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사업에 대한 기후금융 및 녹색금융 활성화를 정책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및 고효율 에너지와 관련된 자산 및 프로젝트와 기업 대출 등으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그린 본드 발행을 통해 친환경 사업의 자본조달과 관련 기술혁신을 지원합니다.

또한 업권별 친환경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융 포트폴리오의 탄소 집약도를 파악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잠재적 영향 및 민감도를 산업별, 자산구성별로 세밀하게 분석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이행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손실 및 자산가치 하락으로부터 고객과 그룹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고탄소 배출 산업 및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 관리합니다.

저탄소 포트폴리오 전환에 대한 그룹사 사업부문 대응 체계 마련 및 한도 설정을 통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Soft-landing 차원의 단계별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 상품 및 서비스

정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RPS 제도, 건물 에너지 총량관리 제도, 저탄소 및 에너지효율적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개선 및 혁신, 기후변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 등으로 인해 저탄소 / 고효율 설비 투자,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투자 등에 대한 수요 증가하여, 그린리모델링이차보전대출, 녹색 환경경영 우수기업대출, 그린에너지 팩토링, 신녹색기업대출, 신재생에너지PF 등 관련 대출상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관련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 ·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해당 대출상품의 취급잔액 및 PF 신규 약정금액은 각각, 9,965억원 / 4,226억원 원입니다. 점차 확대되는 신한금융그룹의 친환경 금융 방침에 따라,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연료전환 등의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자본 투자, 대출, PF확대 및 탄소 배출권 확보와 더불어, 산업체의 친환경경영, 환경 개선 시설자금에 대한 우대여신 등 탄소배출 상쇄 기여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C. 핵심 사업

신한금융그룹은 2020 CSR전략의 다음 단계로 2020년 11월 탄소중립을 위한 Zero Carbon Drive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포트폴리오 전환을 목표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저탄소 포트폴리오 전환에 대한 그룹사 사업부문 대응 체계 마련 및 한도 설정을 통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Soft-landing 차원의 단계별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및 한도 설정, 한도관리체계 강화, 정량적 감축 목표 설정 / 감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대응으로 그룹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대출, 채권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해당 사항이 기후 시나리오에 따라 가져올 재무적 위험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량과 집약도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의 기후변화 위험 요인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여신 / 투자 심사프로세스에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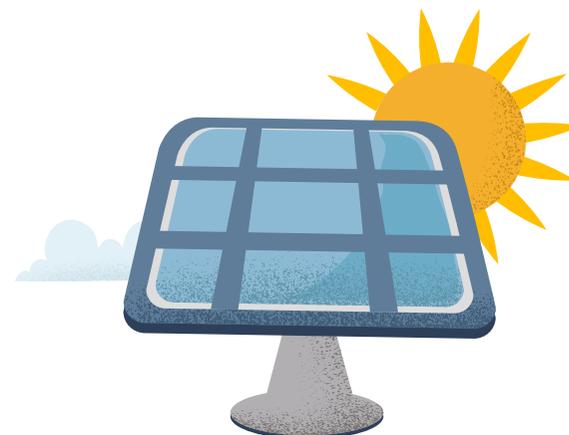
또한 탄소중립 (Net-Zero) 달성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PCAF기준의 '탄소배출량 측정관리 시스템'을 도입 하였습니다. 금융배출량 관리체계 구축 및 Net-Zero 관점 포트폴리오 운용을 통해 금융배출량 규모, 집약도 수준, 국내 업종 특성을 감안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자산군별 / 고객별 / 사업그룹별 / 고배출 업체 등 분류로 관리를 할 수 있게 신설되었습니다.

취급 예정자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금융배출량 영향도를 예측할 수 있는 툴도 마련하였으며 업체 사전할당량 대비 실제배출량 수준을 점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 투자제인

정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RPS 제도, 건물 에너지 총량관리 제도, 저탄소 및 에너지효율적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개선 및 혁신, 기후변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 등으로 인해 저탄소 / 고효율 설비 투자,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투자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그린리모델링이차보전대출, 녹색 환경경영 우수기업 대출, 그린에너지 팩토링, 신녹색기업대출, 신재생에너지PF 등 관련 대출상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 되어 해당 상품 운용 및 신규 상품 개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및 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후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나 사업에 투자할 경우 기업이미지가 훼손되어 영업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 및 프로젝트 투자의사결정 시 경제성 분석 외에 환경사회적 영향과 같은 비재무적 리스크를 평가 · 관리하고 있습니다.



E. 공급망 및 밸류체인

전세계적으로 ESG 관련 제도 및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위의 성과를 보인다고 인식되었던 ESG 성과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주가지수 대비 ESG지수 상대 성과에 따르면 EUROSTOXX, S&P500, MSCI 일반지수 대비 ESG지수의 성과가 1~2%정도 우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속가능투자자산 규모 확대 트렌드에 발맞추어 ESG 투자정책 등을 검토하며 투자자산의 투자비중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한 자산운용이 운용하고 있는 ESG관련 펀드의 수익률 증가가 예상 되고, 이로 인해 신한생명,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와 같은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도 향상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F. 기후변화 적응 활동

[R&D 및 혁신을 통한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 온도 상승으로 인해 고객의 에너지 관리 비용 증가가 예상 됩니다. 따라서 규제 대상 기업 고객은 온실가스 저감 시설 설치, 건물에너지 관리, 건물 리모델링, 노후시설 교체, 녹색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신한은행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 대출 상품 약 15개(2021년 기준 대출잔액 9,965억원)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관련 상품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이 큰 기회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행은 2018년 시중은행 최초로 2천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한데 이어, 2021년에는 3배이상 증가한 6.6천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하여 친환경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G. 자본 배분

정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RPS 제도, 건물 에너지 총량관리 제도, 저탄소 및 에너지효율적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개선 및 혁신, 기후변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 등으로 인해 저탄소 / 고효율 설비 투자,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투자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그린리모델링이차보전대출, 녹색 환경경영 우수기업대출, 그린에너지 팩토링, 신녹색기업대출, 신재생에너지PF 등 관련 대출상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 되어 관련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 ·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해당 대출 상품의 신규 취급 잔액은 9,965억원 으로 상품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으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2021년말 기준 약 1,376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21년 K-EV 100에 가입하여 2030년까지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기존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교체한다고 가정하면, 기존 가솔린 차량 구매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약 41억원 비용 발생이 예상됩니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 대응전략 혹은 정책 및 추진 방향성에 대한 설명

신한은행은 그룹차원의 탄소중립전략인 Zero Carbon Drive (2050년까지 Net Zero 달성) 전략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완전히 상쇄하는 Net-Zero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금융기관의 탄소배출량 관리대상은 금융의 본업을 통한 대출 / 투자등 자금을 공급한 고객에서 발생한 금융배출량 (Scope3)과 금융기관 자체 배출한 내부 탄소배출량 (Scope1,2)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신한은행은 그룹의 넷제로 정책인 Zero Carbon Drive 목표달성을 위해 금융 배출량 감축목표를 수립 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금융배출량 33.6%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억원당 집약도' 플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발전, 철강, 시멘트등 규모대비 탄소배출량이 높은 자산군에 대해 저탄소 전환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친환경 자산중심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재구성함으로써 투자자산의 탄소집약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TF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유관부서의 통합관리프로세스 구축, 구체적인 상쇄 / 친환경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실행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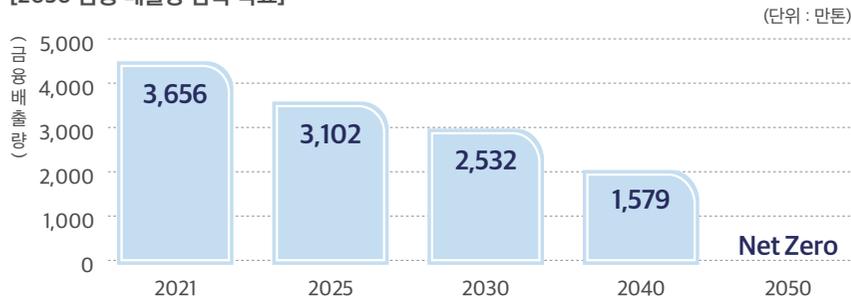
금융배출량의 Net Zero달성을 위해 전환 금융 등 사업 그룹 노력에 대한 상쇄 방안 항목을 수립하고탄소배출량 측정 시스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각 사업에서 활용방안을 도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 대응 전략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K-Taxonomy 대응반 운영을 통한 영향도 분석 및 부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21년도에는 금융위 주관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2년도에도 녹색분류체계 채권발행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향후 타 금융기관 및 해외 사례를 충분히 분석한 후 신한은행에 맞는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 주도의 금융권 워킹그룹 / 시범사업 : 기존 대출실적을 녹색분류체계 기준과 맵핑 작업 진행

[2050 금융 배출량 감축 목표]



[신한은행 K-Taxonomy 대응반]



4. 2°C 이하의 시나리오를 포함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경영전략의 유연성 설명

A.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시나리오 분석 절차는 1단계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소 도출, 2단계 시나리오 범위 정의, 3단계 비즈니스 영향 평가, 4단계 잠재적 대응 방안 도출 등 4단계로 수행합니다. 또한 신한은행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인게이지먼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기후금융 등에 대한 의견을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부에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게이지먼트 활동은 그룹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더불어 기후변화 관련 규제를 준비하고 대응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규제 이슈가 발생되면 ESG운영위원회에서 관련 이슈를 논의합니다. 관련 이슈가 중요한 이슈로 분류되면 CEO에 의해 주재되는 ESG경영위원회의 주요 아젠다로 보고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안의 경우 2022년 상반기에 신설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ESG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사에 걸쳐 실행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인게이지먼트 활동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 1단계

(규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32.8% 감축하도록 되어 있으며 NDC 목표 수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향후 감축 비율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3020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총발전량의 2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제로에너지 빌딩 의무화 (공공기관 2020년부터, 일반건물 2025년부터) 에너지기효율기준 강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장 / 기술) 정부 온실가스 및 재생에너지 규제로 인해 저탄소 / 고효율 기술, 신재생 발전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사업 등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투명 박막형 태양광 패널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 기존 건물 유리창에 설치하는 것이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명성)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석탄화력발전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에 투자할 경우 기업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 2단계

신한은행은 국내 (domestic)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 전략 수립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NDC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은 NDC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를 설정하고, 일정 규모 (최근 3년 평균 125,000tCO2e)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DC 목표 시점인 2030년, 2도 시나리오 목표 시점인 2050년을 기준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 3단계

정부의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규제 및 정책지원으로 인해 저탄소 / 고효율 기술, 신재생 사업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관련 금융지원 상품이 수요에 맞게 구비되지 않을 경우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2021년 기준 그린에너지, 태양광 등에 투자하는 펀드의 신규 취급액은 약 1,691 억원 규모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우위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및 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원 사업 선정 시 경제성 외에 환경, 사회적 위험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4단계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년 2도 시나리오 준수 등을 위한 단계적 대응을 위해 2050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Net Zero로 수립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와 온실가스 감축 옵션 (건물 태양광 패널 설치, 온라인 서비스 강화 등)을 적용할 경우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감축 계획 (연도별 태양광 설치 영업점 수, 온라인 서비스 강화를 통한 영업점 폐쇄, 고효율기기 대체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적책임 요구에 대한 부응 및 사업 투자 위험 관리를 위해 2018년 금융지원 시 환경적, 사회적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룹 환경 사회 리스크관리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2019년 기후변화 관련 그룹 포트폴리오 영향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분석 내용은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 탄소정보 공개여부, 화석연료 익스포저 비중, 발전방식별 전력생산비중, 2도 시나리오에 따른 탄소배출비용의 영향 등 입니다.

2021년에는 은행 익스포저 (188.1조원)를 기반으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자산 종류별, 업종별 절대 배출량 및 탄소집약도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구축된 모니터링 체계를 기반으로 탄소집약 산업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수립하였으며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을 위하여 금융배출량 측정 시스템 구축, ESG 모형 개발을 통한 그룹 ESG 리스크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ESG 및 기후변화 리스크를 기존 리스크관리 체계 내로 통합하여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2022
신한은행 기후금융보고서

III. 위험관리



III. 위험관리

1.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설명

A.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 식별방법

신한금융그룹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Zero Carbon Drive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포트폴리오 전환을 목표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대출, 채권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해당사항이 기후 시나리오에 따라 가져올 재무적 위험을 분석 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리스크관리의 핵심은 거래상대방의 ESG요인 및 기후변화 관련 영향을 인식하고 식별, 측정하여 리스크관리 및 의사결정 체계 내에 적절히 통합하는 것입니다.

신한은행은 시스템을 통한 금융배출량 측정결과를 기반으로, ESG평가등급 등 ESG리스크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신 / 투자프로세스를 정교화하고,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ESG 및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모형개발 및 적용을 통해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 영역을 파악하여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배출량 측면의 한도관리 및 투자자산 구성, 심사/투자 프로세스 신설 등을 추진하고, 향후 대내외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리스크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입니다.

상장사 / 대기업, 중소기업 대상의 ESG 우수기업 선정 / 투자, 지속가능성 관련 테마 또는 자산 투자,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개발 진행 중인 ESG 모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며, 궁극적으로 기존 의사결정 체계 내 통합 적용하여 차별화된 등급별 의사결정 및 심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한은행은 이상기후 발생으로 실물부문에 발생하는 물적 피해가 대출, 투자 등 금융부문으로 파급되는 물리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미래 위기 단계별 기후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위기 시 당행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리스크를 지역별, 업종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는 분석기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B. 기후 위험과 기회에 대한 내부 평가 (Rating)

- 신한은행은 그룹 차원의 기후변화 관련 이행 위험(transition risk),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 등 다양한 위험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비즈니스 의사결정 시 발생 가능한 환경사회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민감한 유의영역을 선정·관리하고, 유의영역에 해당되는 대규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환경사회 리스크를 평가하여 필요시 리스크 감감방안을 마련 합니다. 또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환경사회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주요 정책은 대내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신한금융그룹은 미래 탄소 가격 시나리오 (IEA의 예상가격을 활용, 2도씨 시나리오에 기반 S&P Trucost에서 시뮬레이션함)를 검토하여 그룹 포트폴리오 내 업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탄소비용을 산출하였으며, 고탄소 배출업종인 발전 / 유틸리티, 에너지, 소재의 경우 미래 탄소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로 이행 리스크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그룹탄소배출에 의존하는 생태계 전환을 위해 기회요인은 탄소상쇄량이 측정가능한 재생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금융지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국가 발전 계획 목표에 기반하여 친환경 금융 확대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C.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방법론, 이행 리스크 관리 전략

금융 포트폴리오의 탄소 집약도를 파악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잠재적 영향 및 민감도를 산업별, 자산구성별로 세밀하게 분석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이행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한은행은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포트폴리오 영향을 분석 하는 시나리오 분석 방법론 개발을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행 리스크 분석은 기후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경제적 변수별 포트폴리오의 민감도 분석을 통해 영향을 파악하고 건전성 / 수익성 변화 등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기후변화 취약영역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자본적정성 분석 등에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리적 리스크 분석 방법론은 특정 이상기후에 대해 지역별 / 업종별 위험수준을 파악하여 익스포저 영향분 수준을 분석하는 방식이며, 한국은 기후 특성상 홍(강)수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손실 및 자산가치 하락으로부터 고객과 그룹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고탄소 배출 산업 및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 관리합니다. 분석 대상 포트폴리오는 프로젝트 사업비 또는 자산규모 100억이상, 유의영역 포함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한금융그룹은 미래 탄소 가격 시나리오 (IEA의 예상가격을 활용2°C시나리오에 기반 S&P Trucost에서 시뮬레이션함)를 검토하여 그룹 포트폴리오 내 업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탄소비용을 산출하였으며, 고탄소 배출업종인 발전 / 유틸리티, 에너지, 소재의 경우 미래 탄소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로 이행 리스크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2.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설명

A.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신한은행은 금융배출량 분석 결과와 대내외 최신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기후 변화 취약영역을 파악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 영역의 경우 한도설정 등을 통해 관리하고, 감축 목표와 연계하여 기후변화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여신 및 투자 심사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Zero Carbon Drive 달성을 위한 전략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B. 물리적 리스크 및 기회가 프로세스에 반영된 사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신한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산간지역에 위치한 은행 지점들의 경우, 집중호우에 의한 물리적 피해 가능성이 비교적 높으며, 이로 인한 일시적 영업중지 등으로 인해 업무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평균 기온 상승은 전력 사용량과 수돗물 사용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 생산성도 감소시킵니다. 신한은행은 기상변화에 취약한 건물 및 지점을 미리 파악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C. 전환 위험 및 기회가 프로세스에 반영된 사례

(전환위험) 기후변화 및 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후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나 사업에 투자할 경우 기업이미지가 훼손되어 영업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 및 프로젝트 투자의사결정 시 경제성 분석 외에 환경사회적 영향과 같은 비재무적 리스크를 평가·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당행은 이행리스크 대응을 위한 환경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NGFS의 기온상승 억제 정책에 따른 탄소배출권 가격상승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별 분석결과에 따른 산업별 (고탄소 산업* / 중·저탄소 산업별) 부도율, 대손비용, BIS비율을 분석하였습니다.

※ NGFS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 녹색금융을 위한 중앙은행·감독기구 간 글로벌 협의체

[이행 리스크에 따른 부도율¹⁾ 변화²⁾]

(단위 : %p)

구분		2030년	2040년	2050년
2°C 시나리오	고탄소 산업	3.7	6.6	10.2
	2°C 시나리오	0.0	6.6	10.2
1.5°C 시나리오	고탄소 산업	6.3	6.6	10.2
	2°C 시나리오	0.0	6.6	10.2

*출처 : 한국은행, 기후변화 이행 리스크와 금융안정, 2021

¹⁾ 측정 시점 기준 향후 1년 이내 부도날 확률

²⁾ 기후 리스크 충격이 없이 경제구조가 2020년 수준을 유지하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시나리오별 부도율 변화]

산업 구분	2°C 이내 억제			1.5°C 이내 억제			
	연도 구분	2030년	2040년	2050년	2030년	2040년	2050년
고탄소 산업*		5.41%	8.31%	11.94%	8.03%	11.53%	20.53%
중 / 저탄소 산업		1.53%	1.53%	1.63%	1.53%	1.63%	1.93%

*고탄소 업종 : 금속광물, 비금속광물, 석유 / 화학 / 석탄, 전기 / 가스 / 수도

[BIS비율]

구분	대출자산 ¹⁾	2°C 시나리오			1.5°C 시나리오		
		2030년	2040년	2050년	2030년	2040년	2050년
BIS 비율	18.18%	17.48% (▲0.70%p)	17.15% (▲1.03%p)	16.71% (▲1.47%p)	17.18% (▲1.00%p)	16.74% (▲1.43%p)	15.88% (▲2.30%p)

¹⁾ 신한은행 대출 자산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분석 (주식 및 채권 자산은 제외)

한국은행 분석 결과의 고탄소 및 중·저탄소 산업의 부도율 증가를 준용하여 신한은행의 포트폴리오에 반영하고, BIS 비율의 영향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보유 금융자산 구조는 분석기간대상기간 (2021~2050년)동안 기준시점과 동일하다고 가정 하였습니다. BIS 비율은 2050년 기준으로 2°C시나리오는 1.47%p, 1.5°C 시나리오는 2.30%p 하락하여 현재 수준 대비 손실 폭이 크게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에 통합되는 방법에 관한 설명

A.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대응 프로세스

신한은행은 기후변화 이슈가 투자 및 여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해당 이슈의 위험 및 기회 여부, 중요도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즉, 투자 대상의 유의영역 (발전업, 화학제품제조업, 광업 등 기후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업종) 포함 여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및 기회의 발생가능성, 기후변화가 투자 대상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의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유의영역 내에서도 업종 대비 탄소집약도가 높은 투자 대상은 위험 요소가 더 높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고배출 섹터,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등을 감안한 한도를 설정 / 관리하고, 금융배출량 산출 결과를 활용한 투자 Universe를 구성하여 금융배출량 관리 측면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체계를 여신 / 투자 심사프로세스에 반영하여, 기업 규모별, 기후변화 대응 상황별에 따른 여신운용 방향 설정과 더불어 대내외 규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탄력적인 리스크 대응 전략 수립 및 이행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심사 / 투자 프로세스에서는 CE 한도 설정, 여신전결권 강화, 환경사회 리스크 평가 대상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여신 심사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탄소배출, 금융 배출량이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확인하며, ESG 평가등급과 함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할 예정입니다.

일정 신용등급 이하, 일정 금융배출량 이상, 일정 ESG 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여신 / 투자 심사 과정에서 점검과 의견 등록 프로세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탄소배출계수가 높은 석탄발전소 건립에 대한 원칙적 PF 제한 외에도 PF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B. 전사 이슈 관리에 통합

신한은행은 기후변화 관련 이행리스크(transition risk), 물리적위험 (physical risk) 등 다양한 위험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비즈니스 의사 결정 시 발생 가능한 환경사회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민감한 유의영역을 선정·관리하고, 유의영역에 해당되는 대규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환경 사회 리스크를 평가하여 필요시 리스크 경감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환경사회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주요 정책은 대내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을 위하여 PCAF 기준의 금융배출량 측정시스템 구축, ESG 모형 개발을 통한 ESG 리스크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ESG 및 기후변화 리스크를 기존 리스크관리 체계 내로 통합하여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C. 중대성 평가에 통합

신한금융그룹은 인적, 물적 자산의 보호와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국내외 영업지역 선정 시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자연재해 위기 발생 시 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가 발생할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해 / 재난 위기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그룹 사들은 재해 / 재난 발생 시 비상대책본부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금융 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융지원 사업의 재무적 위험 외에 비재무적 위험, 즉 환경사회적 위험을 평가, 관리하기 위해 그룹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위험 관리를 위해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글로벌 금융기관, ESG 평가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기준을 참고하여 지구 온난화, 미세먼지, 생물다양성, 산업안전보건 등 환경사회적 이슈가 많은 12개 유의영역 (area of interest)을 선정하고, 유의영역 익스포져, 환경사회 이슈로 인한 산업, 기술 변화 및 규제 동향 등 다양한 관점의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환경사회 영향이 큰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배제 또는 조건부 금융지원 정책을 운용합니다.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는 재무영향이 큰 (사업규모 100억 이상) 금융지원 사업에 적용되고, 사전검토 (Pre-Screening), 등급분류 (Risk Categorization), 환경사회 영향평가 (Environmental & Social Impact Assessment), 사후관리 (Post-transaction monitoring) 등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전검토에서는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그룹에서 지향하는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정책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등급분류에서는 환경사회적 영향에 따라 프로젝트의 위험등급 (A, B, C)을 분류하고, 환경사회영향평가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위험등급 A, B) 프로젝트가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환경사회 위험요인에 대한 경감이나 관리가 필요할 경우 금융계약에 반영하여 관리합니다.

사후관리에서는 환경사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경감, 관리 대책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모니터링합니다. 2021년에는 대출 / 채권 / 주식 자산별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자산별 기후변화 위험성에 대한 관리 지표를 만들어 절대적 배출량 및 탄소집약도 기반의 위험도를 평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사 및 자산 수준의 위험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리서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D. 이해관계자 참여(engagement) 방법에 대한 설명

신한은행은 '20년 9월에 적도원칙에 가입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 PF 검토 시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에 대한 참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프로젝트 설계, 리뷰, 실시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경우 그 영향도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에 대한 피드백도 커뮤니케이션 항목으로 적용 받고 있습니다.

2022
신한은행 기후금융보고서

IV. 지표와 감축목표



IV. 지표와 감축목표

1. 조직이 경영전략 및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 공개

신한은행은 기후변화 이슈가 투자 및 여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해당 이슈의 위험 및 기회 여부중요도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즉, 투자 대상의 유의영역 (발전업, 화학제품제조업, 광업 등 기후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업종) 포함 여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및 기회의 발생가능성, 기후 변화가 투자

대상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유의영역 내에서도 업종 대비 탄소집약도가 높은 투자 대상은 위험 요소가 더 높다고 판단합니다.

2. Scope 1, 2 및 Scope 3 (해당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위험 공개

A. Scope 1,2 및 Scope 3 배출량 현황

구분	2021년	비고
Scope 1	10,457톤	내부배출량*
Scope 2	63,764톤	내부배출량
Scope 3	3,993만톤	금융배출량

* 내부 배출량 : 2022. 3월말 정부 검증 완료 예정 (절사 전 수치임)

B.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된 위험

1) **현재의 규제** : 기후변화 관련 규제에 의한 포트폴리오의 재무적 영향 (추가 탄소비용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방향을 결정합니다. 배출권 거래제 규제대상기업은 설비투자, 배출권구매 등으로 인한 운영비용이 상승하게 되어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적 영향을 고려할 경우 마이너스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유의영역에 포함되는 자산 / 채권 / 대출 규모는 약 58.6조로, 관련 기업 중 마이너스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존재할 경우 상환 및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규제** :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규제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여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방향을 결정합니다. 현재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인 신한은행은 시간 흐름에 따른 규제강화를 고려할 때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규제 대상으로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배출권 구매를 위한 운영 비용 상승이 예상됩니다.

3) **적법성** :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체계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투자 기업 또는 프로젝트의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환경오염 경감을 위한 금융조건을 부여합니다. 금융 서비스업 특성상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투자 기업 또는 투자 프로젝트의 기후변화 이슈로 소송이 발생되어 해당 사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 투자 기업 또는 프로젝트의 이미지 및 평판 하락으로 기업 재무 건전성이 취약될 수 있습니다. 인터브랜드의 '20~'21년 브랜드 가치 조사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브랜드 가치는 '20년 대비 '21년 0.4% 증가하였습니다. 고객 기후변화 소송 이슈로 신한금융그룹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경우 영업 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관리를 위해 조직에서 사용하는 목표 및 목표 대비 성과 설명

A.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목표 (Scope 1 + 2)

신한은행을 통해 배출되는 내부 탄소배출량은 본점, 대형건물, 영업점에서 사용하는 전력사용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본점 대형건물 중심으로 냉난방 설비 및 공조 시설의 효율화 등의 절감활동을 통해 2017년 이후 연 5% 수준으로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금융그룹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해 SBTi (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s) 기준의 감축 목표 수립('21년 대비 4.2 % 감축)하여 매년 목표대비 성과를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당행 휘발유 차량을 무공해 차량으로 확대 전환 진행 중에 있으며, 탄소배출 인증서 (REC) 구매 혹은 녹색 프리미엄 지불 등을 통해 내부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2050 내부 탄소배출량 저감 목표]

(단위 : 천톤)



B. 금융배출량 목표 (Scope 3)

신한은행은 이를 위해 탄소회계금융협회 (PCAF,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에 기반하여, 당행 보유자산의 금융배출량 측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그룹의 넷제로 정책인 Zero Carbon Drive 목표달성을 위해 금융배출량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21년 기준 측정대상 자산은 188.1조원이고 금융 배출량은 3,993 (만톤)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금융배출량 33.6%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탄소 집약도'를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PCAF기준 신한은행 금융배출량]

	상장주식 & 회사채	기업대출 & 비상장주식	프로젝트 파이낸스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차량대출	전체
산출자산 (단위 : 조원)	29.8	112.0	1.9	15.7	27.1	1.7	188.1
금융배출량 (단위 : 만톤)	364	3,444	110	49	14	13	3,993
집약도 (단위 : 톤)	12.2	30.8	57.5	3.1	0.5	7.8	21.2

또한 2030년까지 금융배출량 33.6%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탄소집약도 (tCO2e / 억원)'를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탄소 집약도]

(단위 : tCO2e / 억원)

구분	2020년 실적	2021년 실적	2022년 (목표)
집약도	21.07	21.22	19.79

자산 포트폴리오 내에서 배출되는 금융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투자 및 지원이 필요한 자산군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발전, 철강 시멘트 등 규모 대비 탄소배출량이 높은 자산군에 저탄소 전환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친환경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재구성함으로써 당행 투자자산의 탄소 집약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 3자 검증 성명서

주식회사 디엔비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이하, “DNV”)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이하, “신한은행”)의 ‘2022 기후금융 보고서’ (이하 “보고서”)에 대해 독립적인 제3자 검증과 더불어 ISO 14097:2021 (기후 변화와 관련된 투자 및 금융 활동을 평가 및 보고하기 위한 원칙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합도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검증 범위 및 방법

검증 활동은 국제인증업무기준 (“ISAE 3000”), GRI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GRI Standards”) 등 국제적 검증 규격을 반영한 DNV 의 검증 프로토콜인 VeriSustain™ 에 따라 ‘제한적 검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데이터 검증은 신한은행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질의 및 분석, 그리고 제한된 형태의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 실시되었습니다. ISO 14097:2021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합도 평가는 내부 관리체계 현황 분석, 공개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형태로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기후행동의 결과(results of the financier’s climate action) 또는 기준 연도 데이터 (baseline data)에 대한 검증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의견 판단 기준

검증은 2022 년 1 월부터 3 월까지 실시되었습니다. DNV 는 검증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아래의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보고서 문구, 주장에 대한 확인,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데이터 관리 시스템, 정보의 흐름 및 통제의 견고성 평가
- 주요 부서 담당자들과의 온라인 비대면 인터뷰
- 신한금융그룹 및 신한은행의 기후금융 관련 데이터, 기후금융 전략의 이행을 위한 관리 체계 및 관련 프로세스 검토
- ISO 14097:2021 부합도 평가 프로토콜 개발 및 부합 수준 평가
- 문서 검토, 데이터 샘플링,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데이터 베이스, 전산 관리 시스템 등의 테스트

신한은행 관리자 및 DNV 의 책임

신한은행은 보고서 내용에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성명은 독립적 의견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DNV 는 본 성명서를 제외하고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검증은 DNV 에 제공된 신한은행의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사실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DNV 는 본 성명서에 기반하여 의사 결정을 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배상 책임 또는 공동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적격성 및 독립성

DNV 가 수립하고 있는 정책 및 절차는 DNV 및 그 임직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다른 모든 인원 (DNV의 타법인 임직원 포함)에게 독립성 요건을 적용하고,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본 검증 활동은 지속가능성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검증팀에 의해 실시 되었습니다.

최종 검증 의견

우리가 수행한 절차 및 확인된 증빙에 기초하여, DNV 는 신한은행의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및 데이터가 부적절하게 기술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고된 데이터가 신한은행의 운영 과정에서 관리되는 실무 데이터와 적절히 대조되지 않았거나 적용된 가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ISO 14097:2021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합도 측면에서, DNV 는 신한은행이 구축한 기후금융 관리체계가 ISO 14097:2021 프레임워크의 요구사항에 대해 부분적(88.5% 수준)으로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신한은행의 기후금융 관리체계는 2024년까지의 ESG 리스크 관리 로드맵을 바탕으로 개발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보고 내용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 예상 궤적(Trajectory)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및 조치 등) 및 공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디엔비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대한민국 서울

2022년 3월 29일



1 부합 수준 (%)은 DNV 부합도 평가 프로토콜에 기반하여 산정됨. ISO 14097:2021 프레임워크의 요구사항은 26 개 평가 영역 (Assessment Criteria)으로 분류되었으며, 회사는 23개 영역에 대해 적합 (Met), 3개 영역에 대해 부분 적합 (Partially met)하는 것으로 평가됨.



 **Shinhan Bank**

